

외국인 근로자 月 최저임금 중동은 500弗 한국은 1,000弗

지역 중소기업 “너무 힘드네”

“외국인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면 공짜 못 돌려요. 국내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야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릴니까?”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하남산업단지내 A업체 대표의 얘기다. 이 대표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올 초부터 시간당 3천48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다 시간의 수당지급과 숙식제공, 체불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감안하면 국내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질 때가 많다”면서 경영난을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가 지역 내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배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 방침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회는 중동 등 해외 근로자 임금수준이 월 500달러 미만인 반면 국내의 경우 1천달러를 넘어섰으나, 추가로 최저임금 적용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남산업단지 B업체 관계자는 “겨울 일 좀 가르쳐놓으면 임금을 더 준다는 곳으로 도망가버리기 일쑤”라며 “그런데도 꼬박꼬박 1천달러가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C업체 대표는 “두바이의 경우 동남아 근로자에게 월 200~300달러, 대만은 500달러를 주는데 우리나라 1천달러 넘게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일손이 달려 어쩔 수 없

지만,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관한 이들 중소기업체의 고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 및 직업차별에 대한 협약’을 통해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임금수준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로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현행수준을 개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 외국인 취업희망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려 들면서 중소기업 경영난,

▲최저임금제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출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90여개 중소기업이 3천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세요 '농·산·어촌 휴가 보내기 캠페인'의 하나인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행사가 4일 서울 지하철 테마열차에서 마련된 가운데 동물인형으로 분장한 도우미들이 승객들에게 안내 책자와 과일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 캠페인은 휴가철을 앞두고 농림부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할인요금 약관 쉽게 손질

할인액 산정 문구·대상금액 명확하게 표기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알려 가입자를 모으거나, 신규가입자에겐 이득을 알려주는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고쳐도록 한 요금할인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는 약정기간과 사용금액 등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사는 장기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4월말 현재 대표적 할인제도의인 약정할인제와 사용금액 할인제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연간 관련 매출액만 이동통신 업계 전체 매출액의 14.1%인 2조960억 원에 달한다.

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약정할인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돼 있는 약관 규정을 개선해 할인액 산정 문구와 예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대상 금액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품질 불량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약정할인제를 해지했을 때 가입자가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던 요금할인제 이용약관도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해외 휴양지행 고객을 잡아라

대한항공-아시아나 잇단 전세기 투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휴양지에 대규모 전세기를 띄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7월부터 9월 초까지 여름 성수기에 켈러리·케언즈 등 3곳, 아시아나항공은 미야자키·하얼빈 등 7곳에 각각 전세편을 투입한다. 특히 캄보디아 여객기 참사로 인해 해외 저가 항공사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국적 항공사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전세편 또한 올 성수기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7월부터 9월 2일까지 로키산맥의 관광인 캐나다 캘

거리에 주 3회(화·목·일)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는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호주 최고의 관광지 케언즈로 전세기를 운영한다. 케언즈 노선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출발하며 A330 기종이 투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여름에 일본과 중국에 집중적으로 전세기를 배정했다. 4일과 6일에 미야자키 그리고 14일과 16일에는 도쿄, 11일과 18일에는 아사히가와에 각각 4편씩을 투입해 일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고야와 오사카는 13일과 15일에 4편씩 할당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호남 통신판매업체 33곳

광주공정위, 시정 권고

결제대금 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호남지역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4일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끝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안 전장체인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통신판매업체 33개소를 적발,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쇼핑물 사업자의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여부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가세 확정신고자

광주·전남북 40만명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4일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광주·전남북 40만명(법인 4만명, 개인 3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가기간은 7월1~25일이며,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 1월1일~6월30일이다. 광주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이중환급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매입자,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 2천236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위장·가공가로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입매의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과다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천651명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술통계 조사, 검증기회를 늘려가는 한편 고의적인 혐의자는 세액추징과 과발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중소 90% “인상률 높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2008년 적용 최저임금 8.3% 인상률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조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대해 ‘매우 높다’가 56.1%, ‘높다’가 34.7%라고 답해 중소제조업 10개 중 9개

는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보통이다’는 8.4%, ‘낮다’는 0.8%에 그쳤다. 이번 인상으로 금속·연공 등에 따른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받는 중소제조업 근로자 중 임금 재조정 이 필요한 근로자 수는 1개 업체당 평균 18.7명으로, 업체 평균인원

(37.1명)의 과반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인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보험 등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평균 인건비가 11.8%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9인 기업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299인원은 10.0%, 소규모 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한·육우 34만6,000마리

한미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 안정과 송아지 생산증가로 한·육우 사육두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가 3일 발표한 '2007년 6월1일 기준 가축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34만6천마리로 3개월 전보다 7.8%, 전년 동

기보다 13.4%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국 217만9천마리의 15.9%에 해당한다. 송아지 생산두수는 지난해 6월 3만2천마리, 올 3월 2만7천마리에서 6월 4만마리로 크게 늘었다. 600kg 수소 산지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392만9천원→479만4천원→469만9천원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미 FTA 타결 불구

작년보다 13.4% 늘어 돼지도 모돈수 증가와 최근 산지가격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동안 88만 6천마리→89만5천마리→90만9천마리였고, 100kg짜리 산지가격은 31만6천원→21만9천원→ 24만3천원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Infection Prevention Device Rental Business) by '다들바이오테크' (Dallbe Bio-tech).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isinfection machine and text describing the rental servic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0621-531-2811 and 011-9816-5258.

Advertisement for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Lodem Gallery New Product Launch).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gallery and text promoting the launch of new product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011-9816-5258.